

# 증명과 논리 다이어그램에 대한 수사학적 고찰\*

하 병 학

**주제분류** 논리학, 수사학, 논증행위이론

**주요어** 증명, 논리학, 논증행위이론, 수사학, 논리 다이어그램, 페렐만

**요약문**

페렐만이 신수사학을 정립하기 위해 가장 먼저 수행한 작업은 문체론으로서의 수사학과 연역논증의 논리학을 논증행위이론과 단절시키는 일이었다. 이 작업은 신수사학을 안착시키는 데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인접 학문분야와의 연계성을 잘라냄으로 인해 논증행위이론을 통합적이고도 보편적인 학문분야로 정립하는 데 제한이 되기도 한다. 그는 증명을 논리학의 대명사로, 논증행위를 신수사학의 대명사로 활용한다. 이 논문의 출발점은 과연 증명과 논증행위가 배타적이고 단절적인가 하는 물음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첫째 논리학이 논증행위이론에 대해 이상적인 모델이라는 점, 둘째 증명행위도 논증행위의 하나라는 점, 셋째 논증행위와 증명의 경계가 결코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문제제기를 하고 두 학문분야 사이의 연관성과 연계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명료한 증명을 위한 노력의 하나인 논리 다이어그램을 소개한다. 논리 다이어그램은 논리적 대상을 기하학적으로, 복잡한 추상적 개념연관들을 시각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증명을 손쉽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다이어그램이 증명력이 대단히 뛰어난 이유를 보임으로써 설득력에 관심을 가진 수사학자들에게 논리 다이어그램에 대한 수사학적 주목을 이끌고자 한다.

\* 이 연구는 2011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수학을 하는 것은 신도 동물도  
아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  
직 중간자인 인간뿐이다.” (O. 베커)

## 1. 논리학과 수사학의 관계

페렐만(Ch. Perelman)이 신수사학을 정립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한 작업은 한 쪽으로는 문체론으로서의 수사학을, 다른 한 쪽으로는 논리학을 논증행위이론과 단절시키는 일이었다.<sup>1)</sup> 이 작업은 한편으로는 신수사학을 안착시키는 데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단절적인 규정으로 인해 인접 학문분야와의 연계성을 잘라냄으로 인해 논증행위이론을 통합적이고도 보편적인 학문분야로 정립하는 데 제한이 되기도 한다.

필자는 논리학과 수사학의 관계를 페렐만의 논증행위이론을 중심으로 논한 바 있다.<sup>2)</sup> 거기에서 필자는 논증(Argument)과 논증행위(Argumentation), 논리와 언어, 진리로서의 로고스를 중심으로 두 학문에도 대체 어떤 점에서 갈등을 일으키는지 논하고, 수사학적 입장에서 논리학에 대해 제기한 비판 중 어떠한 것이 문제점이 있는지 밝히고, 나아가 논리화용론의 관점에서 두 학문 간에 상호협조가 가능한 지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들과 함께 논리학과 수사학의 관계를 크게 조망하면 다음과 같다.

- 
- 1) 페렐만의 “신수사학”이라는 용어의 ‘신’에서 ‘새로운’ 수사학이라는 점에서 문체론으로 대표되는 낡은 수사학과의 결별을, ‘수사학’에서 ‘수사학적 논증행위이론(rhetorische Argumentationstheorie)’을 목표로 내세움으로써 논리학과 단절을 이해할 수 있다. Ekkehard Eggs, "Die Theorie über das Argumentieren von Perelman und Olbrecht-Tyteca", in: Josef Kopperschmidt (Hrsg.), *Die neue Rhetorik, Studien zu Chaim Perelman*, Wilhelm Fink Verlag, 2004, S. 135.
  - 2) 줄고, 「논리학과 수사학의 갈등과 공존: 페렐만의 논증행위이론을 중심으로」, 『수사학』, 15집, 한국수사학회, 2011. 09. 330~350쪽.

① 매체	언어, 기호, 그림, 몸짓 및 표정 등
② 메시지	근거 → 주장
③ 대화자	화자 ----- 청자
④	생활세계

일반적으로 논리학은 근거와 주장의 필연적 관계를 나타내는 연역논증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하지만 수사학에서 탐구하는 논증은 연역논증을 넘어 근거와 주장의 개연적 관계를 다룬다(②). 두 학문 사이의 중요한 차이 중 하나인 논증과 논증행위는 ②의 메시지만을 고려할 것인지, 이를 넘어 대화에 참여하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언어행위, 나아가 상호작용을 함께 고려할 것인지와 관련되어 있다(③). ③, 즉 화자와 청자 사이의 대화를 주목할지라도, 동일 문제에 대해 동일 목적과 동일 언어 및 의미로 이루어지는 이상적 대화를 관심 대상으로 삼는지, 아니면 삶의 형식과 문화의 차이에 기반을 둔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언어이해의 차이, 더 나아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느낌과 감정, 대화자 간의 사회적 윤리적 관계 등도 중요한 현실적 대화를 관심 대상으로 삼는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④). 전자의 대화를 주목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론, 현대에 와서 발전한 대화논리학(Dialogische Logik)과 논리화용론(Logische Pragmatik)이라면, 수사학은 후자의 대화에 주목한다. 이로 인해 로고스 중심의 논리학적 기반의 논증행위이론과 로고스뿐만 아니라 에토스와 파토스를 함께 고려하는 수사학적 기반의 논증행위이론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다. 매체는 과연 논증이, 나아가 대화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과 관련된다(①). 형식논리학은 언어로 된 문장이 아니라 문장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명제를 -형식논리학이 일상언어를 다룰 경우에도 해석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명제이다- 주된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논리학이 일상언어가 가진 다의성을 피하고 일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언어인 기호를 활용하는 반면, 수사학은 일상언어, 나아가

준언어와 몸짓 및 표정 등의 비언어라는 매체까지 유의미한 것으로 파악하고 탐구한다[8쪽].<sup>3)</sup>

이 글에서는 ②, ③ 그리고 ①과 관련된 것 하나를 논의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증명’에 관한 것이다. 페렐만에 따르면 논리학은 ②의 연역 논증만을, 신수사학은 ③에서 펼쳐지는 ②의 비연역논증을 다룬다. 그리고 전자를 증명이, 후자를 논증행위가 대표하고 있다. 또한 그는 두 학문 분야가 주목하는 전달 수단과 방식에서(①)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이 글은 그와 같은 시각이 단절성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과 함께 둘 사이의 연관성과 연속성(Kontinuität)을 보여주고, 나아가 ①과 관련하여 이제까지 수사학적 관점에서 조명되지 않았던 논리 다이어그램(Logische Diagramm)의 의미를 드러냄으로써 수사학의 지평을 넓히하고자 한다.

## 2. 증명과 논증행위에 대한 일반적 이해

페렐만에 있어 증명은 논리학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명은 그의 논리학과 수사학에 대한 이해를 고찰할 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sup>4)</sup> 그는 증명과 논증행위를 완전히 분리한다. 이러한 단절적 규정의 문제성을 지적한 학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플란틴(Ch. Plantin)은 “증명과 감동 없이?”라는 도발적인 논문제목으로 이 문제점을

3) 페렐만은 이러한 몸짓과 표정 등은 신수사학의 탐구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한다. 본문에서 [ ] 속 쪽수는 다음 책의 쪽수를 나타낸다. Chaim Perelman/Lucie Olbrechts-Tyteca, *Die neue Rhetorik, Eine Abhandlung über das Argumentieren*, Josef Kopperschmidt(Hg.), *problemata frommann-holzboog*, 2004. 이 책을 따로 표기할 때는 <신수사학>으로 나타낸다.

4) Perelman의 <신수사학>의 첫 장, 첫 절의 제목이 바로 “증명과 논증행위”이다. 또한 그가 논리학과 증명을 불가해한 관계로 이해한 것은 다음의 책의 첫기절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논리학에 대한 이해들이 수없이 많고 다양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증명의 이념 아래 총괄될 수 있다. 논리학은 증명의 방법에 대한 탐구이다.” Ch. Perelman, *Logik und Argumentation*, Athenaeum, 1994, S. 1.

지적인 적이 있다.<sup>5)</sup>

증명을 대표로 한 논리학과 자신이 구축하고자 하는 논증행위이론으로서의 신수사학을 구별하면서 페렐만은 다양한 관점에서 각각의 특징들을 제시하였다. 그것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과격하여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를 범하거나 두 학문분야의 관계를 간과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sup>6)</sup> 인식론 등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 따라 사용되는 개념들이 애매모호하여 중첩되거나 그 층위가 다른 부분도 발견된다.<sup>7)</sup>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증명과 논증행위를 중심으로 한 논리학과 신수사학의 특징들><sup>8)</sup>

	논리학	신수사학
대표적 행위 방식	<b>증명(Demonstration)</b> [17]	<b>논증행위(Argumentation)</b> [17]
논증유형	형식적, 연역적 논증(formale, deduktive Argument) [17]	비형식적 논증(informale Argument) [17]
아리스토텔레스와의 관계	분석론(Alytik) [4]	변증론(Dialektik), 수사학(Rhetorik) [6, 7]

- 5) 물론 이 제목은 논리학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수사학, 특히 파토스 관련 사항과의 단절을 피하는 신수사학에 대한 문제제기를 나타낸다. Christian Plantin, "Ohne Demonstration und Emotion?", in: Josef Kopperschmidt (Hrsg.), *Die neue Rhetorik, Studein zu Chaim Perelman*, S. 281~295.
- 6) 예컨대 이미 필자는 명증성, 자명성(Evidenz)을 비판한다고 형식논리학이 비판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른 논문에서 밝힌 적이 있다. 줄고, 「논리학과 수사학의 갈등과 공존: 페렐만의 논증행위이론을 중심으로」, 344~345쪽. 사실 페렐만의 글에서도 저자의 이러한 지적을 인정할 만한 부분들이 발견된다. (<신수사학> 17쪽 등.)
- 7) 예컨대 <신수사학>의 35쪽을 보면, 철학자와 수사학자를 대비하면서 진리(Wahrheit)와 속견(Meinung)이 같은 층위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 둘은 존재의 층위가 전혀 다르다. 하나는 명제가 가질 수 있는 특성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결과이다. 정확하게 대비하려면 진리와 개연성(Wahrscheinlichkeit) 또는 앎(Wissen)과 속견(Meinung)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 8) [ ] 안의 수는 <신수사학>에서 용어가 등장하는 쪽수의 예시이다.

	논리학	신수사학
탐구 대상	사태판단, 사실판단(Sachurteil) 명제(Gedanke, Proposition) 앎, 지식(Wissen) [35]	가치판단(Werturteil) [102] 문장, 말(Satz, Reden) 숙견(Meinung), 추측(Vermutung) [7, 35]
표현	인공언어(Kunstsprache) [17, 183] 명석판명한 개념들(eindeutige Begriffe[clare et distincta]) [2]	자연언어(Natürliche Sprache) [183] 다의적 용어들(mehrdeutige Wörter) [17]
논증의 출발과 목표	진리(Wahrheit) [44] 진리 인식(Wahrheit Erkennen)	개연성(Wahrscheinlichkeit) 진리 간주 (Fürwahrhalten) [38], 진리 인정(Wahrheit Anerkennen)
목표에 도달 방법	객관적 확인(Überzeugen) [35] 진리 확증(Wahrheit bestätigen)	주관적 설득(Überreden) [35] 동의가능성 증대(Zustimmungsbereitschaft steigern) [61]
주장과 근거의 관계	필연성(Notwendigkeit)	개연성(Wahrscheinlichkeit) [1]
근거의 특징	자명성(Evidenz) [1, 4]	수용가능성(Akzeptabilität), 수긍가능성(Plausibilität) [1]
진리의 특성	객관성(Objectivität) [63] 일관성, 무모순성(Konsistenz)	상호주관성(Intersubjektivität) [168] 합의(Konsens) [56]
화용적 상황	독백(Monolog)	대화(Dialog) [49~53]

페렐만에 있어 증명과 설득은 논리학과 신수사학을 비교하는 출발점이다. 만일 수사학이 논증의 합리성과 무관하게 논증행위의 효과인 설득만을 지향한다면, 소피스트의 수사학에 대한 플라톤의 비판과 마찬가지로 논리학은 그 부당성만을 보여줄 뿐, 논리학과 수사학의 협력적 교류는 더 이상 없게 된다. 하지만 페렐만이 추구하는 논증행위이론은 합리성을 무시하는 한갓 말놀이, 말의 기교나 기만의 수사학이 아니다[9~10쪽].

우리가 논증행위를 하는 이유는 어떤 판단, 주장에 대해 과연 그것이 참인가, 사실인가, 신뢰할 수 있는가, 동의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거나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즉 이와 같은 물음이 필요 없는 것, 예컨대 “나는 빨간 색을 좋아한다”, “비가 오니 외롭구나!”와 같은 주관성에 머물러도 무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논증행위를 하지 않는다. 또한 “일본은 섬이다”, “갑돌이가 을돌이의 형제이면 을돌이는 갑돌이의 형제이다”와 같이 당연한 사실이거나 누구나 받아들이는 판단에 대해서도 논증행위를 하지는 않는다. 즉 논증행위는 한 사람의 생각, 판단 등이 개인적인 주관성을 넘어 객관성, 상호주관성으로 초월해나갈 때 그 타당성의 확인요구와 함께 등장한다. 요컨대 자신의 생각, 판단이 옳다고 믿을 때 그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는지 확인하고자 할 때, 그리고 자신의 생각, 판단이 합리성에 기반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하기를 기대하며 설득이라는 언어행위를 하고자 할 때 논증행위는 등장한다. 논증행위의 대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판단(주장)이 참이라는 사실판단만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바람직함에 대한 실천적 판단, 어떤 사물이 아름다움 등의 가치판단 등이 그러한 예다.

‘증명(demonstratio, proof, Beweisführung)’이란 ‘그러함을 보여줌, 드러냄’이라는 라틴어 어원에서 출발하였다. 어떤 사람이 살인사건의 범인임을 보여주는 물증이나 요구되는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명서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같은 증명의 어원적 의미는 인터넷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 “인증샷”, 어느 개그 프로그램에서의 유행어 “너의 용감함을 보여줘!” 등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만날 수 있다.

증명은 특히 학문에서 아주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학문은 지식과 진리, 그리고 체계성을 추구하는데, 증명은 ‘진리임을 보여줌’을 뜻하기 때문이다.<sup>9)</sup> 증명이 특별히 중요한 까닭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한 것들이 정말 진리인가 하는 의문을 제거할 수 있는 ‘확실성’을 확

9) 일반적 의미에서 증명이란 한 주장이 참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참고: L. Heindorf, *Elementare Beweistheorie*, Mannheim/Leipzig/Zürich, 1994, S. 11.

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볼 때, 증명은 크게 셋으로 나뉘며, 그에 따라 진리의 종류도 나뉜다.<sup>10)</sup>

첫째 어떤 판단/믿음/주장/문장/명제가 사실임을 보여주는 경험적, 실증적 증명이다. 이러한 진리관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출발하는 ‘진리대응설(veritas est adaequatio rei et intellectus)’에 [2쪽] 입각하여 우리의 판단/믿음/주장/문장/명제가 사실과 일치할 때 그것이 진리라는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말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경험, 감각적 직관(sinnliche Intuition)에 의존하며[2쪽], 이러한 점들을 명료하게 나타내기 위해 사실적 진리(단언적 진리: assertorische Wahrheit)라 불린다.

두 번째 의미의 증명은 논리학의 주관심사인 연역적 증명이다. 이것은 지각으로부터 자유로운 이성적 활동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그 정의를 살펴보면, “논증을 중심으로 한 테제의 참 또는 거짓을 이끌어내는 논리적 과정”,<sup>11)</sup> “한 명제가 참임을 다른 명제의 도움을 받아 근거짓는 논리적 조작”을<sup>12)</sup> 뜻한다. 또는 ‘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현한다면, ‘전체로부터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됨을 보여줌’을, 또는 ‘다루고 있는 명제가 이미 인정된 명제로 논리적으로 연역될 수 있음을 보여줌’을 뜻한다. 이러한 증명은 어떤 판단/믿음/주장/문장/명제가 연역체계 안에서 거짓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에서 필증적 진리(apodiktische Wahrheit)임을 확인하는 특징을 지닌다.<sup>13)</sup>

세 번째 증명의 의미는 앞에서 언급한 두 의미보다 포괄적이다. 즉

10) G. Frege, *Begriffsschrift*, in: *Begriffsschrift und andere Aufsätze*, hrsg. I. Angelelli, Hildesheim, 1964, IX, 프레게는 증명과 진리의 관계를 말하면서 근거가 요구되는 진리를 둘로 나누고, 증명이 순수 논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진리와 그 증명이 경험사실에 의존하는 진리를 구별하고 있다.

11) N. I. Kondakow, "Demonstration", in: *Wörterbuch der Logik*, Herausgeber der deutschen Ausgabe, E. Albrecht, G. Asser, Leipzig, 1983, S. 118.

12) 위의 책, "Beweis", 89쪽.

13) 증명은 논리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다. 현대논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레게가 자신의 <개념기호>를 착수한 이유도 증명을 위한 것이었다. (참고, 프레게, 위의 책, XII.)

“이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증명(논증행위)은 문제시 되는 사태를 추론과 다른 방식으로도 확실하거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내는 모든 사고”라는<sup>14)</sup> 정의이다. 이 정의는 증명이 진리의 확실성, 필연성을 넘어 개연성과도 관련된다는 점에서, 즉 증명과 논증행위가 분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증명과 관련해서 부언해야 할 것은 명증성(Evidenz)이다. 명증성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첫 번째 증명의 의미에서 말한 감각적 직관이고, 다른 하나는 데카르트가 말한 이성적 직관이다. 이 둘 다 페렐만은 비판한다[2쪽]. 페렐만이 특히 비판했던 데카르트의 합리주의는 그 어떤 오류의 발생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는 진리를 추구했다. 모든 진리는 근거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모든 진리가 궁극적으로 환원될 수 있는 근거, 하지만 그 자체는 다른 근거를 갖지 않으면서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증명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증명을 할 수도 없지만 모든 증명의 토대가 되면서도- 그 부정이 불가능함을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초명제(Grundsatz, Grundgesetz)에 대한 이성적 직관을 요청하면서 이를 명증성(Evidenz)이라고 불렀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증명과 명증성이 동일한 목적과 연관된다는 점이다. 전자는 진리임을 드러내는 작업이고, 후자는 은폐되어 있던 것이 탈은폐되어 ‘밖으로(ex) 드러나 보이는 것(Das sich heraus zeigen)’으로서의 사태(Sachverhalt), ‘밖으로(ex) 끄집어내어 진리임을 봄(videns)’이라는 심리적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증명과정에서 참입이 드러났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명증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선택사항일지 모르겠지만, 아직 증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명증성을 근거로 증명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넘친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명증적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을 다시 낳기 때문이다.<sup>15)</sup> 아무튼 명증성은 오늘날 논리학의 관심이 아니다.

14) W. Brugger, "Beweis", in: *Philosophisches Wörterbuch*, Freiburg/Basel/Wien, 1978, S. 46.

15) 슈택필러는 명증성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명증성을 인정하면 순환논리에 빠지고, 부정하면 자가당착에 빠진다고 하면서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식론의

## 3. 증명과 논증행위의 연계성과 연속성

위에서 말한 연역적 증명은 엄격하게 이해한 좁은 의미의 증명이다. 물론 논리학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화자와 청자, 인간의 심리적 변화 등과 무관한 ‘결함 없는 추론사슬(Lückenlose Schlusskette)’을 확립하는 것이었다.<sup>16)</sup> 하지만 위에서 세 번째로 소개한 넓은 의미의 증명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로 남는다. 혹자는 이 세 번째 정의는 페렐만이 말하고자 하는 증명의 의미를 혼란스럽게 하며, 그는 오직 연역적 증명과 논증행위를 구별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sup>17)</sup>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증명의 논증행위적 특성을 간과할 여지가 있으며, 증명 대상과 행위, 증명 과정과 결과 등을 명료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논자의 견해이다.

증명과 논증행위에 대한 이해에서 필자가 수용하기 힘든 점은 과연 그들이 단절적이고 배타적인가 하는 것이다. 논리적 증명이 이상적인 것에 불과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대화에서는 만나기 힘들다는 점이나 이것만이 학문적 가치가 있고 개연성과 관련된 논증행위는 학문적 가치가 없다는 시각에 대한 신수사학의 비판은 타당하다. 논리적 증명만으로 도달할 수 없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논증도 많다. 또한 모든 논리적 증명은 모든 청자에 대해 항상 설득적이라는 말은 분명 넘치는 말이다. 어떤 증명은 상당히 설득적이지만 어떤 증명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명하는 행위와 논증하는 행위가 배타적이고, 모든 논증행위는 비증명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넘치는 말이다. 증명과 논증행위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최종 문제라 말하였다. W. Stegmüller, *Metaphysik-Skepsis-Wissenschaft*, Frankfurt a. M., 1954, S. 101.

16) 프레게, 위의 책, 3쪽.

17) 페렐만도 연역논증 외 다른 증명방법이 있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신수사학> 39쪽.

## 1) 이상적 모델로서의 증명

증명은 설득을 위한 근거제시 방법의 이상적인 모델이라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논리적 증명에는 도달하지 못하지만 상당히 합리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설득을 논증행위가 지향한다면, 수사삼단논법이 이상적 모델로서의 삼단논법에 의존하고 있듯, 증명과 논증행위 사이의 연관성을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논증행위를 구성하면서 증명을 하나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검사가 한 피의자의 혐의를 강화하기 위해 알리바이(alibi)가 없음을 보여주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때 알리바이는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범죄지는 범죄현장에 있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의자는 범죄현장에 없었음을, 즉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가 범죄자라는 개연성이 높다’를 말하고 있다. 이러한 논증행위는 전형적으로 형식논리학에서 말하는 후건부정식을 활용한 증명의 과정을 따르고 있다.

과학적 증명에서 사용되는 인공언어도 일상언어가 지닌 다의성과 주관적 이해의 가능성이라는 문제를 제거하고 객관적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안된 인간의 생산물이다. 이것은 무개인적(unpersönlich)[18쪽]일 수는 있어도, 무인간적(unmenschlich)인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논증행위 과정에서 소통에 걸림돌이 되는 어떤 핵심용어에 대한 대화자 간의 이해 간격을 줄이기 위해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의미인지 확인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밟아가는 것에서도 증명에서의 일의성이라는 이상적 모델을 볼 수 있다.

## 2) 논증행위로서의 증명행위

증명행위(Beweisen)도 논증행위(Argumentieren)의 하나라는 견해이다. 만일 증명이 논증행위가 아니라면 과연 무엇을 하는 행위인가? 페렐만은 증명은 대화상황을 전제하지 않은 채, 다시 말해 상대방의 인정과 동의의 목표를 하지 않은 채, 어떤 주장이 참인지 확인하는 과정(Monolog)이

라고, 논증행위는 상대방을 앞에 둔 대화(Dialog)라고 구별한다[49~53쪽].<sup>18)</sup> 하지만 어떤 주장이 참인지를 논하는 대화상황에서도 증명은 등장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명제/판단이 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주장이 참인지 혹은 참이 아닌지 확신을 하지 못하는 상대방에 대해 그 정당성을 입증하는 의무를 지닌다. 즉 주장자가 자신의 주장이 참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던 길(den Weg zur Wahrheit)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그 주장은 검증(Prüfung)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길을 보여주는 과정, 즉 자신의 판단,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준과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증명이며, 그것은 논증행위(Argumentation)로 이루어진다. 그 주장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면, 즉 주장이 참임이 확증되면(bestätigen), 상대방은 주장자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참이라고 확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증명은 그 어떤 설득력보다도 강한 설득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연역적 증명에도 해당된다. 연역적 증명은 논증의 타당성, 즉 전제와 결론 사이의 필연적 관계, 즉 전제로부터 결론이 귀결됨(Schlussfolgerung)을, 전제가 결론을 함축하고 있음(Implikation)을 뜻하기에 증명대상이 필연성을 가진다는 특징만 다를 뿐이다.

그리고 증명도 상대를 주목하며 증명을 보여줄 상대에 따라 그 방식은 달리 할 수 있다. 비전문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증명방식과 전문가들에게 전문적인 용어들을(예: 화학기호, 수학기호 등) 사용하여 증명하는 방식은 다르다. 그런데 후자만 증명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증명방식이 다를 수 있다. 증명을 할 때도 어떤 분야의 특수 전문가의 일반 전문가들에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곤 한다. 심지어 수학자에게는 수학적 증명이 가장 설득적이며, 실증주의자에게는 물증이 가장 설득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 전문가가 동일한 증명과정을 다루지만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목적의 증명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검증목적의 증명을 구별할 수 있는

18) 즉 1장에서 언급한 표현방식을 따르면, 증명은 오직 ②에 머물고 있고, 논증행위는 ③에 위치한다는 말이다.

데, 전자는 논증행위이고 후자는 증명이라고 보는 것보다 각각 목적이 다른 논증행위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요컨대 ‘전자/후자에서는 증명이라는 논의대상을 교육/검증이라는 목적에 따라 학생/전문가에게 적절하게 논증행위를 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연역적 증명이 청중의 인정과 무관한 논증의 필연성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비논증행위적이라고 보는 것은 증명하고자 하는 대상과 증명을 보여주고자 하는 청중에 대한 증명행위, 과정과 결과를 혼동한 것이다. 필연성은 연역적으로 증명된 것의 특징일 뿐, 상대방 앞에서 증명하는 과정의 특징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플란틴은 증명의 결과는 독백적이지만, 그 과정은 대화적이라고 이해하였다.<sup>19)</sup> 또한 모든 논증행위가 다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곤란한 사례도 있다. 예컨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논증행위를 하는 변호사와 검사, 그리고 판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변호사와 검사의 논증행위는 설득을 지향한다. 하지만 판사의 판결 과정은 청중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의 설득보다 변호사와 검사의 논증행위를 토대로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법적 정당성에 도달하려는 의미에서 증명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른 사례로 어떤 학자가 다른 학자들 앞에서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였지만 그가 실패한 경우를 상정해 보자. 그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그가 무언가를 증명했는가? 아니다. 무엇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증명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 그는 논증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증명의 실패의 경우에도 그는 증명은 못했지만 논증행위는 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성공과 실패는 발화수반행위에서는 차이가 없고, 발화효과행위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따라서 증명행위도 논증행위의 하나이되, 다만 특수 대상에 대한 논증행위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19) Ch. Plantin, 위의 글, 294쪽.

## 3) 논증행위와 증명의 경계

세 번째 견해는 증명의 대상과 논증행위의 대상을 구별하는 기준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서 출발한다.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은 논증행위를 할 수 없고 논증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증명할 수 없다면, 증명을 할 수 있거나 없음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또한 논리적 증명이 주어진 지식에서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지식으로의 이행을 의미한다면 그 출발이 되는 지식이 참된 지식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시 논증행위가 요구된다. 플라틴이 논증행위가 증명을 구성할 때 첫 번째 계기로 등장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sup>20)</sup>

페렐만이 논증행위이론을 건설하면서 가장 적대적으로 대하였던 것은 사실 논리학이라기보다 수학이다. 논리학에서 주요시하는 공리주의(Axiomatik), 연역성, 인공언어 등은 수학적 모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을 대표하는 기하학의 발전 사례는 증명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주지하다시피 기하학은 기원 전 300년에 유클리드에 의해 체계화되었으며, 유일한 기하학으로서 인정되어 왔다. 그런데 그 증명 체계의 핵심에 해당하는 다섯 번째 공리인 평행선 공리에 대해 19세기 초에 가우스(C. F. Gauss)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유클리드기하학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전문학자들 중 아무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명하며 유일하게 완벽한 체계로 인정했다가 그 인정이 변하는 과정을 보면 과연 증명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는 무관한 무역사적 무인간적 행위인가 하는 의문을 던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데이비스(Ph. J. Davis)와 허쉬(R. Hersh)와 같은 수학자들은 수학과 수사학의 단절에 이의를 제기한다.<sup>21)</sup> 그들은 수학적 증

20) Plantin, 위의 글. 294쪽.

21) 그들은 “수학이 사실은 수사학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학이 때로는 수학적인 것이 될 수 있고, 또 수학이 때로는 수사학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필립 J. 데이비스, 루벤 허쉬, 『수사학과 수학』, J. S. Nelson, A. Megil, D. N. McCloskey, 『인문과학의 수사학: 학문과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언어와 논증』, 박우수, 양태중 외 옮김,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74쪽.

명의 정확성을 보증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던지면서 “증명은 확신을 주지 못하며, 확신을 주는 것은 증명이 아니라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수학적 증명은 기계적인 것도 형식적인 것도 아니라고 진술함으로써 (...) 그것은 공통의 의미들 위에 근거한 인간들끼리의 교류이며, 그것은 말이나 공식이 전부인 것은 아니라”고 결론짓는다.<sup>22)</sup> 이것은 증명과 논증행위가 결코 단절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들로 인해 증명과 논증행위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이상과 현실, 보편과 구체, 전체와 부분, 과정과 결과의 차이, 목적과 상대방의 상이성에 따른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논증행위이론을 더 보편적으로 정립하는 길이라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 4. 다이어그램과 증명력

이제까지 논증행위와 증명행위를 단절적으로 바라보는 페렐만의 시각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였다면, 4 장에서는 증명방식과 관련하여 수사학적으로 주목할 만한 것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요컨대 증명은 논증행위와 무관하며 수사학은 ‘설득력(Überzeugungskraft)’에 주목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수사학자들에게 증명도 그 방식에 따라 효력이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증명력(Beweisführungskraft)’이 설득력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성적 청자에 대해서도 논리적 증명이 성공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하나는 파토스, 에토스 등 다른 설득의 요소로 인해 논리적 증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설득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논리적 증명 자체를 청자가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전자에 대해 논리학은 논하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후자를 논의할 것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 논리적 증명의 전문적인 과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거나 논하지 않을 것이다. 몇 쪽에 할애하여 그것을 서술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글의 목적과도 거리가 멀다.

22) 위의 글, 92, 93쪽.

따라서 아래에서는 논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서술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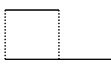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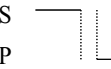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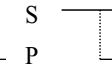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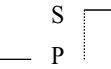
증명은 진리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어떠한 증명방식은 상당히 어려워 그 증명을 따라가기 쉽지 않고, 어떠한 증명방식은 쉽게 이해된다. 다시 말해 모든 논리적 증명방식이 동일한 수준의 어려움을 갖는 것은 아니며, 언어행위이론에 따라 표현하면, 동일한 수준의 발화효과적 힘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오류 없이, 보다 명료하고 손쉬운 증명방안, 다른 사람들도, 심지어 배우는 학생들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증명방안은 대다수 논리학자의 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꿈을 실현하고자 시도한 대표적인 사례가 논리 다이어그램(Logisches Diagramm)이다. 일상언어로 된 대화(Dialog)를 중심으로 하는 논증행위이론과는 달리, 논리학에서의 다이어그램은 논리적 대상을 기하학적으로, 즉 그림으로 재현한 것을 말한다. 요컨대 다이어그램은 상당히 복잡한 추상적 개념연관들을 시각화함으로써 논리적 증명을 손쉽게 한다. 이러한 시각화는 오늘날 각종 프리젠테이션에서 청중들에게 보다 손쉽게 전달하고 청중들이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보여주기 위한 장치인 도표, 그래프, 도식, 지도, 그림 등에서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학적 관점에서 결코 생소한 것이 아니다.

논리학에서 증명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구현하려고 노력한 논리학자는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인물로 손꼽히는 사람은 라이프니츠(W. G. Leibniz)이다.<sup>23)</sup> 그는 선 다이어그램, 원 다이어그램 등을 시도했는데, 여기에서는 삼단논법에서 한 문장의 질과 양을 고려한 주어와 술어의 관계를 선을 이용하여 나타낸 것을 소개하겠다.<sup>2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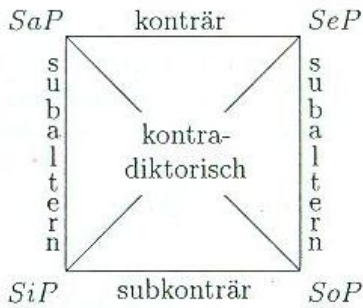
23) I. M. Bochenski, *Formale Logik*, Freiburg/München, 1956, S. 304.

24) G. W. Leibniz, "De formae logicae comprobatione per linearum ductus", in: L. Couturat, *Opuscules et fragments inedits de Leibniz*, Paris 1903, Hildesheim 1961, S. 295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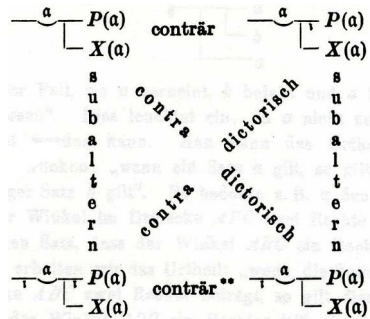
의미	모든 S는 P이다	모든 S는 P가 아니다	어떤 S는 P이다	어떤 S는 P가 아니다
고전적 표현	SaP	SeP	SiP	SoP
라이프니츠의 선 다이어그램	S  P	S  P	S  P	S  P

고전적 표현방식에서는 주어와 술어의 포함관계를 말하는 전칭긍정, 전칭부정, 특칭긍정, 특칭부정을 a, e, i, o라는 특수한 기호로 나타내는데, 이것들은 ‘나는 긍정한다’라는 라틴어 ‘affirmo’에서 전칭긍정과 특칭긍정을, ‘나는 부정한다’라는 라틴어 ‘nego’에서 전칭부정과 특칭부정을 따온 것이다. 즉 고전적 표현방식은 많은 선이해를 요구한다. 하지만 라이프니츠의 선 다이어그램은 이러한 기호들의 의미규정을 벗어나 한 눈에 주어와 술어의 포함관계를 보여준다.

이번에는 삼단논법에서 직접적 추론으로 가장 중요한 논리대당의 관계를 나타내는 고전적 표현방식과 현대논리학의 아버지 G. 프레게의 표현방식을<sup>25)</sup> 비교해 보자.



<고전적 표현방식>



<프레게의 표현방식>

25) G. Frege, *Begriffsschrift*, S. 24

위의 논리대당 정사각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각각의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고전적 표현방식은 a, e, i, o라는 기호의 의미를 규정한 후, 그것들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라면, 프레게의 표현방식은 이러한 기호의 의미에 의존하지 않고 그것들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예컨대 다른 모든 것은 같지만 a 앞에 부정을 나타내는 아래 밑줄이 있는 것들은 서로 모순 관계여서(SaP와 SoP, 그리고 SeP와 SiP) 어떤 하나로부터 그것과 모순되는 것의 부정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논리 다이어그램들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오일러(L. Euler)의 원 다이어그램이다. 이제 언어적 서술, 논리식 그리고 오일러의 원 다이어그램 중 어떤 것이 더 명료한지 삼단논법 하나로 비교해 보자.

<언어적 서술>	<논리식>	<논리 다이어그램>
모든 인간은 죽는다	M ist P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S ist M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S ist P	

언어적 서술로 된 삼단논법은 논리식으로 환원되어야 증명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논리식으로 환원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물론, 그보다 먼저 논리식의 타당성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수고 없이 오일러의 원 다이어그램은 그 타당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오일러는 자신의 원 다이어그램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 원들(또는 이 모양들에 대해 어떤 이름을 붙이더라도 마찬가지이다)은 대상들을 고찰하는 것을 쉽게 하고 논리학에서 사랑하는 비밀들을 우리 모두에게 밝혀내는 데 아주 능수능란하다. 다른 것에서는 그 비밀들을 증명하는 데 많은 수고를 들여야 하는 데 반해, 그 비밀들이 이러한 기호들의 사용을 통해 스스로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sup>26)</sup>

필자의 생각으로 오일러의 원 다이어그램이 갖는 가장 중요한 장점은 표현력, 전달력의 뛰어난으로 인해 증명력이 다른 것들보다 강하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증명력이란 복잡한 논리적 연관에 대한 이해에 요구되는 엄격한 정신적 활동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시각을 통해 손으로 가리키며 손쉽게 논리적 타당성을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솔츠(H. Scholz)는 그의 다이어그램 덕택으로 삼단논법이 대중화될 수 있었다고 높게 평가하였다.<sup>26)</sup> 여기에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대중화란 설득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증명이 논리학의 관심일 뿐 수사학, 논증행위이론과는 무관하다는 생각을 재고하게 한다.

논리적 증명의 성공이 청자의 동의에 의존해 있지 않다는 것과 그것을 더 명료하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보여주는 일은 다른 문제이다. 논리 다이어그램은 논리적 사고, 논리적 사태(Sachverhalt)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는 표현력과 청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하는 전달력이 대단히 뛰어나다는 점에서, 요컨대 보이고자 하는 것을 더 명료하게 보이도록 하는 증명력이 강하다는 점에서 수사학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설득력이 궁극적으로 청자에 대한 효력을 주목하는 것이라면, 다이어그램을 통한 증명력도 마찬가지로는 점에서 수사학적 고찰 대상이라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 5. 마무리하며....

끝으로 필자는 수학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오스카 베커(O.

26) L. Euler, *Briefe an eine deutsche Prinzessin über verschiedene Gegenstände aus der Physik und Philosophie*, Braunschweig, 1986. 103te Brief.

27) H. Scholz, *Abriss der Geschichte der Logik*, Freiburg, 1959, S. 43. "Eine ehrenvollen Platz dürfen noch heute die schlichten Eulerschen Kreise (...) beanspruchen für das, was sie bis zum heutigen Tage für die Popularisierung der Aristotelischen Syllogistik geleistet haben."

Becker)가 인간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던 “병존(Paraexistenz)”이라는 개념을 언급하고자 한다. 그는 “수학을 하는 것은 신도 동물도 아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중간자(Zwischenwesen)인 인간뿐”이라고<sup>28)</sup> 말한다. 그는 병존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이란 시공간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시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운 수학적 존재를 지향하는 양면성을 지닌 존재임을 말하고자 하였다. 이는 인간이 다가가고자 하는 수학적 이상조차도 결코 인간성과 단절할 수 없음을 뜻한다. 증명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논증행위와 증명행위를 단절하는 페렐만의 이념을 따르는 것보다 이 둘 사이의 연관성, 연속성을 연구하는 것이 논증행위이론을 더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논증행위이론만이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수학 등 모든 학문분야들에게 요구되는 보편적인 토대 학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톨릭대학교)

---

28) O. Becker, *Grösse und Grenze der mathematischen Denkweise*, Freiburg/München, 1954, S. 161 f.

## 참고문헌

- 필립 J. 데이비스, 루벤 허쉬, 「수사학과 수학」, J. S. Nelson, A. Megil, D. N. McCloskey, 『인문과학의 수사학. 학문과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언어와 논증』, 박우수, 양태종 외 옮김,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 하병학, 「논리학과 수사학의 갈등과 공존: 페렐만의 논증행위이론을 중심으로」, 『수사학』 15집, 한국수사학회, 2011.
- Becker, O., *Grösse und Grenze der mathematischen Denkweise*, 1954.
- Bochenski, I. M., *Formale Logik*, Freiburg/München, 1956.
- Brugger, W., *Philosophisches Wörterbuch*, Freiburg/Basel/Wien, 1978.
- Eggs, E., "Die Theorie über das Argumentieren von Perelman und Olbrecht-Tyteca", in: Josef Kopperschmidt (Hrsg.), *Die neue Rhetorik, Studien zu Chaim Perelman*, Wilhelm Fink Verlag, 2004.
- Euler, L., *Briefe an eine deutsche Prinzessin über verschiedene Gegenstände aus der Physik und Philosophie*, Braunschweig, 1986.
- Frege, G., *Begriffsschrift*, in: *Begriffsschrift und andere Aufsätze*, hrsg. I. Angelelli, Hildesheim, 1964.
- Heindorf, L., *Elementare Beweistheorie*, Mannheim/Leipzig/Zürich, 1994.
- Kondakow, N. I., *Wörterbuch der Logik*, Herausgeber der deutschen Ausgabe, E. Albrecht, G. Asser, Leipzig, 1983.
- Leibniz, G. W., "De formae logicae comprobatione per linearum ductus", in: L. Couturat, *Opuscules et fragments inédits de Leibniz*, Paris 1903, Hildesheim 1961.
- Perelman, Ch., *Das Reich der Rhetorik, Rhetorik und Argumentation*, München, 1980.
- Perelman, Ch., *Logik und Argumentation*, Weinheim, 1994.
- Perelman, Ch./Olbrechts-Tyteca, L., *Die neue Rhetorik, Eine Abhandlung über das Argumentieren*, Josef Kopperschmidt(Hg.), problemata

frommann-holzboog, 2004.

Plantin, Ch., "Ohne Demonstration und Emotion?", in: Josef Kopperschmidt (Hrsg.), *Die neue Rhetorik, Studien zu Chaim Perelman*, Wilhelm Fink Verlag, 2004.

Stegmüller, W., *Metaphysik-Skepsis-Wissenschaft*, Frankfurt a. M., 1954.

## **Rhetorische Betrachtung über die Demonstration und das logische Diagramm**

Ha, Byung-Hak (Catholic Univ.)

Was Perelman zu erst gemacht hat, um die Neue Rhetorik zu begründen, ist die Unterscheidung der Argumentationstheorie von der Logik als Deduktionstheorie und der traditionellen Rhetorik als Kunst des Ausdrückens. Die Demonstration steht dabei für die formale Logik einerseits, die Argumentation für die Argumentationstheorie andererseits. Diese Arbeit geht von dem Zweifel aus, ob das Beweisen und das Argumentieren in der Tat scharf getrennt sind, wie Perelman sich vorgestellt hat. Dagegen argumentiere ich zum ersten, dass die Logik ein ideales Modell für die Argumentationstheorie anbietet, zum zweiten, dass das Beweisen auch ein Argumentieren ist, zum letzten, dass die Grenze zwischen Argumentation und Demonstration sich nicht scharf ziehen kann. Daraus geht hervor, dass der Zusammenhang und die Kontinuität zwischen den beiden Disziplinen nicht abzusehen sind. Danach beschäftigt sich diese Arbeit mit den Logischen Diagrammen als dem klarsten Versuch der Demonstration, um zu zeigen, dass sie eine sichtbare Beweisführungskraft haben. Damit macht diese Arbeit die Rhetoriker auf den rhetorischen Wert der logischen Diagrammen aufmerksam.

**Hauptbegriff:** Demonstration, Logik, Argumentationstheorie, Rhetorik, Logisches Diagramm, Perelman

**Key words:** Demonstration, Logic, Theory of Argumentation, Rhetoric, Logical Diagram, Perelman

철학탐구 제32집

하병학 e-mail: [speechact@catholi.ac.kr](mailto:speechact@catholi.ac.kr)

투 고 일	2012년 10월 12일
심 사 일	2012년 10월 26일
게재확정	2012년 11월 19일